

#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제 17 차 아 시 아 경 기 대 회 에 참 가 할 국 가 종 합 팀 남 자 축 구 검 열 경 기 를 지 도 하 시 었 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검열경기를 지도하시었다.

검열경기에는 국가종합팀과 제비팀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두 팀은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훈련방침을 받들고 평시에 런마한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였다.

경기에서는 지난 시기 국제 국내경기들을 통해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우수한 선수들과 전도유망한 젊은 선수들이 망라된 국가종합팀이 제비팀을 12: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이겼다.

관람자들은 우리 식의 경기전법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보여준 두 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종



합팀 남자축구선수들이 높은 축구기술과 메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종합팀 남자축구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

가를 위해 그동안 훈련을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고 하시면서 체육인들이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숭고한 체육정신과 민족의 기개,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거례의 화해와 단합,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것은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신성한 체육이 불순세력들의 정치적통략물로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이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한 우리 체육인들이 훈련에 더큰 박차를 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고 산 과 수 농 장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었 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전망대에 오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눈썹리 아득한 고산과수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얼마나 보기 좋소, 철령아래에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이 활짝 꽃피나고있소, 아마 시인들이 이곳에 서면 시상이 절로 떠오를것이라고 하시며 끝간데없이 펼쳐진 과수의 바다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농장에 새로 꾸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산과수농장

을 세계적인 파일생산기지로, 무릉도원으로 꾸리고 더 많은 파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것으로써 농장력사의 갈피갈피를 세세년년 빛나게 기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쇠그물물타리공장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신장, 쇠그물장, 제관용집장, 형강생산장, 수지도포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618건설돌격대가 당의 의도에 맞게 쇠그물물타리공장을 훌륭히 건설했다고, 내외부는 물론 모

든 요소요소를 멋있게 꾸렸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과나무들의 생육상태를 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수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까운 년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파일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도도 가르쳐주시었으며 농장에 필요한 튼튼기재와 설비들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제대군인부부인 김주성, 김금희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시었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집들이한 제대군인부부인 리정수, 손인옥과도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선 2,000여세대의 문화주택들에 입사한 농장의 근로자들이 정말 좋아한다는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618건설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은 이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한다고, 당의 의도를 관철하는 길에서 돌격대가 발휘하고있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모든 단위들에서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를 위한 장군님께서 정해주신 날자에 무조건 완공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강력한 력량을 투입해주시는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건설자들과, 고산과수농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농장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으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과수농장으로 전면시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검열경기를 몸소 지도해주신 소식은 내외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천만군사로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밤늦도록 우리 축구선수단의 검열경기를 장시간 지도하시며 무한한 영광과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선수들의 사기를 한껏 북돋아주신 숭고한 영상을 우리러며 우리 인민과 전체 체육인들은 격정과 흥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특히 우리 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것은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체육인들이 이번 경기를 통해 겨례의 화해와 단합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신 뜻깊은 말씀에서 온 겨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확고한 통일 의지와 숭고한 민족애를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결정에는 비록 정세가 긴장하고 대결이 첨예하지만 동족이 치르는 잔치 분위기를 돌고어주고 이번 대회가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려는 숭고한 뜻이 어 려있다.

우리가 북남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정세 속에서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공식 통보한데 이어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

을 대보내기로 하고 실무회담을 주동적으로 제기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이번 경기대회참가를 북남관계개선의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여 겨례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려는 애국애족적립장에서 출발한것이다.

우리는 여러 나라들이 참가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가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로 더 흥성이게 되고 더우기 격렬된 북남관계를 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우리는 평화와 친선을 지향하는 올림픽정신과 민족의 화합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례의 념원을 반영하여 이번 실무회담에서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규모와 래왕 경로 및 운수수단, 숙소리용과 응원문제를 비롯한 실무적문제들과 관련하여 국제관계에 기준하면서 북남사이의 현재세를 충분히 고려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이러한 선의와 노력에 대한 초보적인 리해도 없이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경기대회참가문제에 시비를 걸고 말쑤름이나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것은 내외의 비난과 망신만을 자초하는 수치스러운 처사라밖에 되지 않는다.

북남관계가 지금처럼 최악의 상태에 처

해있는 속에서 별치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시비를 걸내기를 한다면 북과 남 사이에 북잡하게 얽히고 맺힌 그 많은 매듭들을 언제 가도 한치도 풀어나갈수 없을것이다.

한치맥으로 잇닿아있고 군사분계선에서 지척인 인천에서 진행되는 국제경기에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사태가 빚어진다면 온 겨례와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씁쓸수 없는 오욕을 남기게 될것이다.

그 누구도 순수한 체육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지금 온 나라에 휘몰아치는 체육열풍과 함께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더욱 높아가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진정어린 경기대회참가의사에 대해 의심을 앞세우지 말고 적대관념으로 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을 대보내는 문제를 겨례의 화해와 단합,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견지에서 인내성있게 대 할것이다.

주제103(2014)년 7월 23일  
평 양

겨례의 화해와 단합에 적극 이바지해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피위원회는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공화국의 선수단이 참가하게 된다.

이 소식은 지금 내외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화국의 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것은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돌이켜보면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남조선에서 열리는 국제체육경기대회마다에 공화국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나가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열기를 크게 고조시켰다.

대표적으로 2002년 남조선의 부산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장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이 아리랑곡조가 울리는 속에 통일열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하고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제화된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경기장봉화대에 통일의 화불로 타오를 때 온 겨례는 통일의 환희로 들끓었다.

공화국의 선수들과 응원단이 가는 곳마다에서 통일의 파도가 세차게 굴이쳤다. 경기장들에서 울려 퍼진 《우리는 하나!》, 《조국통일!》, 《우리 민족끼리!》의 거세찬 함성이 민족은 하나, 피줄도 하나임을 확인시키며 겨례를 감동시켰다. 북의 선수들

이 경기장에 나서면 남의 관중들이 응원하고 남의 선수들이 출전하면 북의 응원단이 열렬히 응원을 펼치는 등 겨례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여갔다. 《우리는 하나다!》의 구호로 시작된 파도타기응원이 즉시에 호응을 불러일으켜 관중석을 돌고돌며 하나된 모습으로 뒹어변지고 다시 그 파도와 함성이 경기장을 타고넘어 온 남녘 땅을 통일열기로 뜨겁게 달구었다. 마치도 국제체육경기가 아니라 남과 북이 모여 우리 민족끼리를 합치려는 통일행사의 마당과도 같았다.

그때의 광경들은 피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인 북과 남의 우리 겨례의 념원과 요구는 오직 하나 조국통일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파시하는 그야말로 감동적인 화폭이었다.

그 나날 온 겨례의 가슴속에 고동친것은 우리 민족끼리 기여이 존엄있고 통성변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이었고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의 세기적속망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북남관계는 짝막혀있다. 최근에 공화국이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것은 현시기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

관계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성의에는 성의로 대하고 진정에는 진정으로 대답하는것이 도리이다.

남조선당국이 미합공포함을 조선반도수역에 끌어들여 전쟁연습을 벌이고 8월중에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하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례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된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온 겨례의 기대는 크고 관심은 높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다시한번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대구대학생체육경기대회의 그 열기를 창조하자》,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은 살아숨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게 될것이며 대립과 갈등을 불는 녹이듯 할것이다.》라며 통일사절들이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신성한 체육이 불순세력들의 정치적통략물로 되여서는 안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동족을 적대시하고 시비하는 비렬하고 도발적인 행위를 일삼을것이 아니라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려는 공화국의 대법하고 성의있는 제안들에 적극 호응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 혁